

보 도 설 명 자 료

('21. 9. 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산업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R&D 투자규모를 확대 중으로
향후에도 지원을 확대하여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
(서울경제 9.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산업부는 탄소중립 R&D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, 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을 지속하여 민간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
- ◇ 9.2일 서울경제 <탄소중립 외치며 R&D 지원예산은 쥐꼬리... "민간에 부담 떠넘겨">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저탄소 시대 산업구조 대응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민간 전망에 비해 부족하여 향후 민간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산업부는 탄소중립 위한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22년도 R&D 예산(정부안)을 확대함 ('21년 1조 2,621억원 → '22년 1조 5,531억원)
 - 에너지 분야는 저탄소·친환경 에너지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R&D 지원을 확대하였음 ('21년 7,535억원 → '22년 9,561억원)
 - 산업분야는 탄소다배출 업종의 공정혁신*을 위한 신규사업을 마련하였고, 중장기적으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**을 위한 대규모 R&D 사업을 준비 중임

* 철강.시멘트.반도체.석유화학 공정혁신('22년 신규 15개, 724억원)

** 산업분야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('23년~'30년, 총사업비 6.7조원 (예타추진))

- 산업부는 민관협력의 「12개 업종별 협의회」를 구성하여 민간의 수요를 적극 반영 중으로, 향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임

※ 문의: 이종석 산업기술정책과장(044-203-4540) / 조원철 사무관(4526)